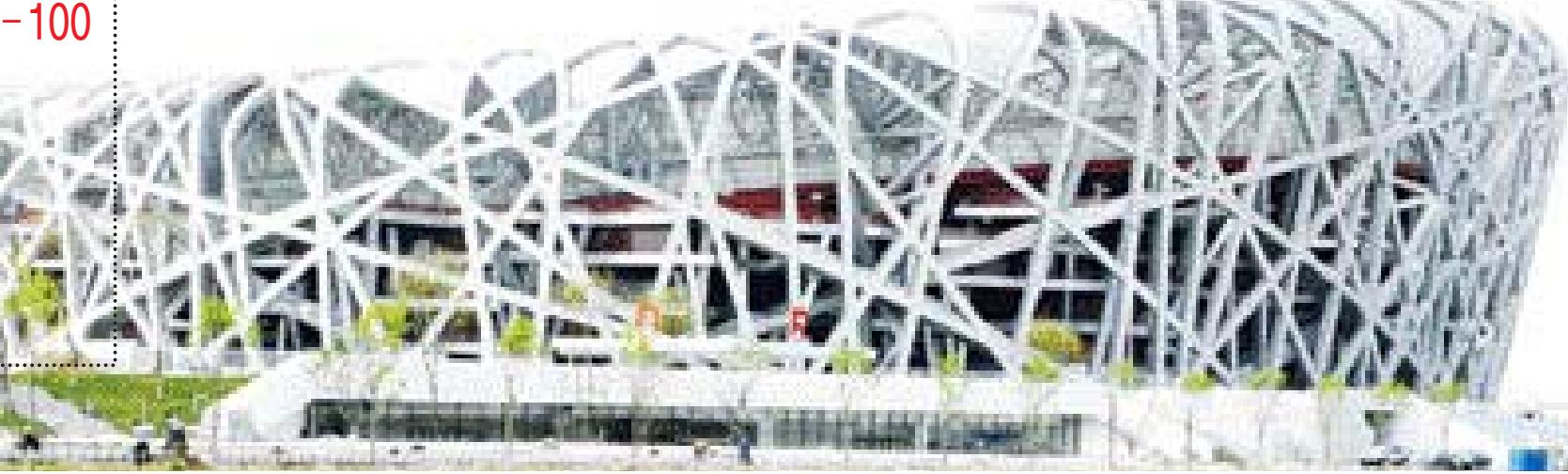


베이징올림픽 D-100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

역대 최대 규모…‘손님맞이’ 마무리 단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을 향한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대회 일정과 전망, 새 동지를 형상화한 주경기장 등 60억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베이징 올림픽을 미리 만나보세요.

205개국, 선수 1만500명 참가 예상

녹색·과학·인문 올림픽 이념 내세워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인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열리는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하는 대회 참가 선수는 205개국 1만500여명입니다.

총 28개 종목에 302개의 금메달(남자 165개, 여자 127개, 혼성 10개)이 걸린 베이징 올림픽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경기 방법과 규정에 큰 차이가 없지만, 7개 종목이 추가되고 6개 종목이 빠지면서 금메달 수가 1개 늘었다.

올림픽 참가 회원국도 늘어날 전망이다. 투발루, 마샬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세 국가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해 IOC 회원국 수가 202개국으로 늘어 나면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참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홍콩 등지에서 개최되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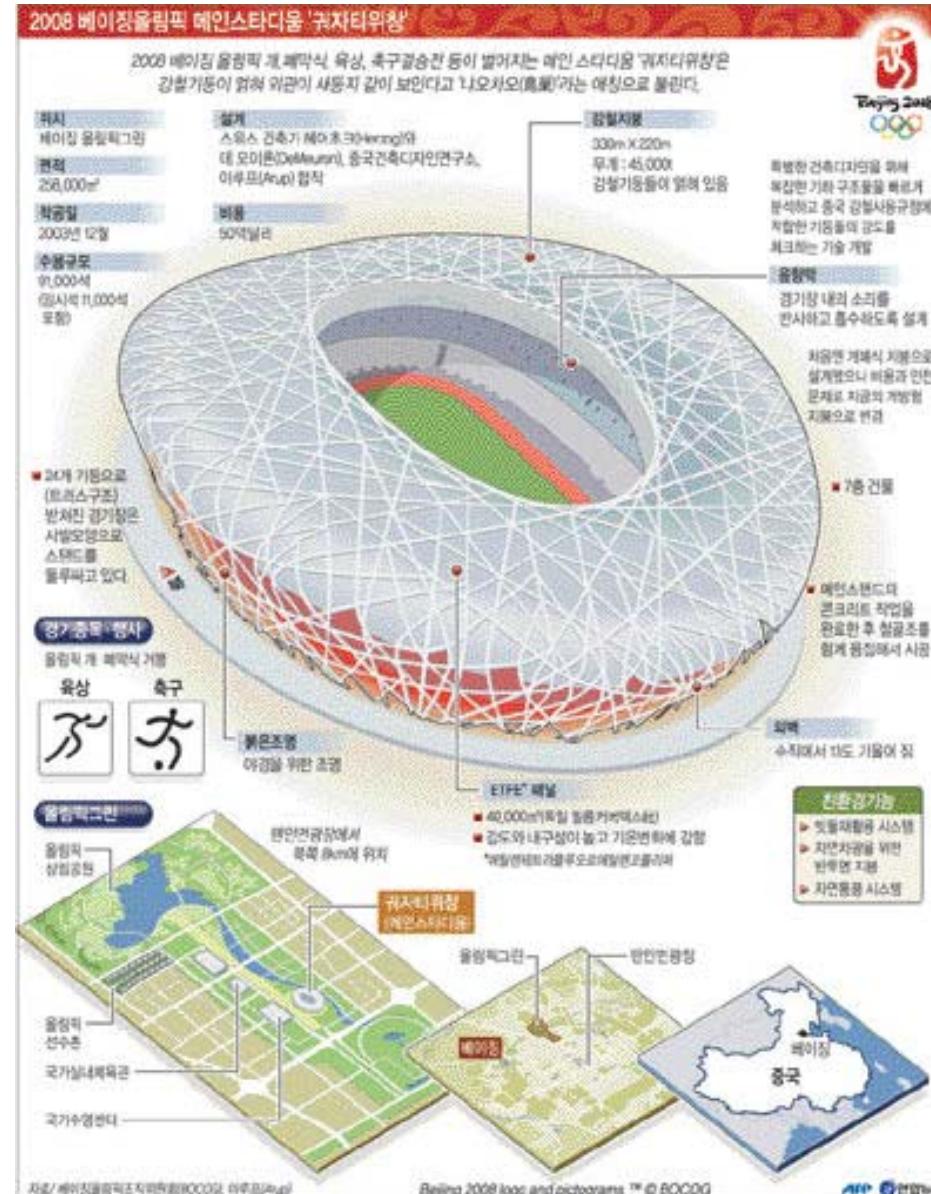
픽 경기장 수는 신축 경기장 12개, 증축 경기장 12개, 임시 경기장 8개 등 37개다. 선수촌과 메인 프레스센터(MPC) 등 45개 올림픽 시설을 건설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베이징 올림픽의 슬로건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으로, 영문은 ‘One World One Dream’이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응모한 21만 건 가운데 선택한 공식 슬로건이다. 중국과 세계가 손잡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고 문명의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의 숭고한 이상을 창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녹색올림픽, 과학올림픽, 인문 올림픽’이라는 3대 이념도 내세우고 있다. ‘인문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경기장 시설은 물론 경기 운영과정에서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 동원해 ‘과학 올림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올림픽’을 위해 자동차 가스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유발 공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등 대기오염과 반환경 국가의 이미지 변화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中, 美 꺾고 종합 1위 넘본다

개최국 이점 안고 ‘스포츠 최강’ 노려

“미국을 누르고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하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안방에서 인류 최대의 스포츠 대전을 개최하는 중국이 종합 1위 앙상블을 드러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른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내건 목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스포츠 최강 자리에 올라서는 것. 금메달 개수를 올림픽 참가국의 국력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종합 1위와 2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베이징 대회 최대 메달밭인 육상(금메달 47개)에서 초강세, 수영(46개)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중국은 그 외 종목에서 틈을 전략을 리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중국은 남자 허들 110m 세계기록 보유자인 류시앙에게 목을 막고 있다. 수영에서도 미국의 강세가 돋보인다. 미국은 아테네 대회에서 경영에 걸린 32개 금메달 중 12개를 훔쳤었다. 이번 대회 8관왕에 도전하는 ‘수영 천재’ 마이클 펠로스(아테네올림픽 6관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안방에서 미국의 아성을 허물겠다는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수영에서 아테네 대회 때 수확했던 금 6개 이상을 자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광주일보는 베이징 올림픽 D-100일을 맞아 독자 여러분에게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백지란 중국 통신원의 현장보고를 게재합니다. 백지란 통신원은 현지 취재를 통해 올림픽을 앞둔 중국과 중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꾸밈없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反中정서 확산 맞불

중국의 과잉 반응은

서방에 대한 쇼맨십”

달라이, 티베트(시장-西藏), CNN, 까르푸….

최근 중국 국영방송 CCTV의

뉴스채널을 틀기만 무섭게 쓰 아지는 용어들이다. 무슨 말일까. 실상은 이렇다. 지난 3월 14일 티베트 독립요구 시위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유혈 진압했다. 곤이어 성화봉송 저지,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등 전 세계적으로 반 중국 정서가 확산됐다.

주목할 점은 바로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대응이다. 집요하고 치밀하기 때문이다. 우선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각종 토론회를 열었다. 과거 티베트 독립 시절의 혹독했던 농노제와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쏟아냈다. 학교,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애국 시위, 티베트 독립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견접을 수 없는 민족주의의 폭출이다.

서방 언론에 대한 심사포화도 시작됐다. CNN, BBC 등의 오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동방 닷컴은(www.eastday.com)은 평론을 통해 “서방 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는? 변태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민일보 산하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도 “서방의 중국을 겨냥한 화살은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가 꽂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의 티베트 시위 진압을 비난하자 중국 청년들이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영웅’과 ‘여적’도 속속 탄생했다. 성화봉송 행사에서 티베트 독립을 외쳤던 한 여성 유학생은 그녀의 부모와 함께 암퇘장 당했다. 성화탈취를 끝까지 막아낸 장애인 선수는 일약 영웅 반열에 올랐다.

뿐만 아니다. 전국 각지에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 중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의 티베트 시위 진압을 비난하고, 달라이 라마와의 대회를 촉구한 데 대한 불복이다.

‘입 닥쳐라, CNN!’이란 구호가 새겨진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는가하면, ‘CNN처럼 굴지마’가 중국인들 사이에 신조어로 자리잡았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CNN측이 중국 정부에 사과했지만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이성을 잃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우선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준비를 발표했다. 중국의 전략적 태도인 것이 분명하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신경보(新京報)는 “중국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보는 당시 서기 체 기관지 광명일보의 산하 일간지다. 신경보의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결론은 간단하다. 얼핏 보기에도 광기처럼 느껴지는 중국의 대응은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서방에 대한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산은 차갑게 살아있다.

그렇다면 대응책도 분명하다. 성화 봉송을 불모로 잡은 인권 시위, 티베트 독립의 지속적 요구는 중국과 중국인들의 ‘쇼맨십’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방식대로’라는 한층 격화된 메시지가 돌아올 수도 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독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만이 중국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rjrkccm@paran.com